

[報 文]

壽衣에 關한 研究

全 英 淑

淑明女子大學校 家政大學 衣類學科

A Study on Shroud

Young Sook Jun

Dept. of Clothing & Textiles, College of Home Economics,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is is a study of the history and the changes of methods of making shroud from Koryo up to present.

Korea is Known as a country of East with its courteous people, and naturally the people observed the proprieties, especially on the funeral, in performing religious services and worshiping of the ancestors.

Since Koryo and Yi Dynasty, because of the complexity of the formalities under the confucianism, the shroud also became very complex.

The process of making shroud was various according to the classes and economical circumstances. They made shroud of fine textured hemp cloth or silk, selecting one of "good days" in leap year. As they believed the shroud should be rotten as soon as possible, fine textured hemp cloth was common as for the material.

The color of the shroud was either plain or colored as the casual wears. In sewing shroud, the thread shouldn't be knotted nor connected in each seam and the strips should not be even numbered.

These methods of making shroud have been changed variously and simplified according to the economical circumstances up to now.

I. 緒 論

高麗末葉 文公家禮와 朝鮮王朝의 儒教思想을 승상하면서 宮中에서는 물론 民間에서도 철저하게 禮를 지켰다. 그중에도 哀禮 및 祭禮등 祖上에 대한 禮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정성을 다하여 葬事를 뵈시는 것이 禮儀의 根本이라고 생각했다. 箕子集解에 보면 사람에 있어 天地自然是 生命의 根源이고 先祖는 種族의 근원이며 임금은 社會平和의 根源이라 했다. 또 禮儀라는 것은 出生과 死亡을 重要視하는 것으로 出生은 人生의 初作이요 死亡은 人生의 끝이므로 시작과 끝을 훌륭히 완성시키는 것이 人生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같이 죽음이란 人生의 종지부를 찍고 이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현설로 오로지 경건하고 엄숙한 습품이 있은

따름이다. 그러므로 故人에 대한 追恨이 없게 하기 위해 성의껏 모셔야 後孫으로서의 道理를 다하는 것이며 조상에 대한 孝道라 생각하여 家產의 無理를 해 가면서도 子孫으로서의 道理를 다하여 왔다. 그러므로 本稿에서는 처음 領命하면서 入棺할때 까지 哀禮 節次中 初終, 裹, 小斂, 大斂까지 死者에게 갈아 입히는一切의 衣服을 文獻을 통하여 살펴 보려고 한다.

II. 初終의 節次와 斂襲

1. 初 終

病勢가 위급해지면 환자를 正寢으로 옮겨 室內外를 조용하게 안정시키고 紗으로 된 새로운 衣服으로 갈아입히고 男子는 女子의 손에 女子는 男子의 손에 숨을 거두지 않게 한다.¹⁾ 운명하면 바로 수세를 걷고 훈이

불을 써운다. 喪大記에 말하기를 운명하면 바로 시신을 옮겨 시상위에 놓고 운명할때 입던 옷을 벗긴다. 이것을 沐浴이라 하였다.²⁾

2. 襲

死者에게一切의 衣服을 改着시키는 것으로 古禮에는 死亡한 當日에 거행하였으나 보통 諸具가 미비하기 때문에 死亡한 이튿날 거행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行한다.

襲衣는 될수 있으면 시신이 안보이도록 하여 敘襲을 行하고 아래에서부터 위로 둑어간다. 이때의 衣服은 襲하기 전에 미리 東쪽에 진열해놓고 벽밀에 것이 오게 하고 일부분이 남쪽으로 오게 한다.³⁾ 차례는 먼저 深衣를 펴놓고 中赤莫은 深衣에 叠復하고 赤古里는 單衫이 叠復하되 뒷고대와 左右소매의 끝은 紬絲로 째매어 놓고 單袴는 袴에 叠復하여 袴의 허리를 째매되 모두 紌絲의 끝을 길게 늘이어 밖으로 나오게 하여抽出하기에 편하게 한다. 尸體를 沐浴시킨뒤에 布巾을 尸端에 들씌워서 尸腰의 밑으로 橫納한다.一人은 尸首를 받들고一人은 兩脰을 받들고 또 左右에 각각一人은 布巾 한끝씩을 들어서 襲席(草席)으로 옮겨 놓은뒤에 먼저 左右襠을 신기고 다음에 袴를 입히되二人은 兩股을 들고二人은 袴의 허리를 맞잡아 左右足을 袴腰에 넣은 뒤에 점점 下體를 들면서 袴를 引上하여 입히고 脊帶를 맨 뒤에 行縢을 칠것이며 袴를 整歛하여 腰帶를 매되 尸端에 들씌워서 橫納하는 것이다. 婦人은 裳을 使用하여 結繫하되 또한 尸端으로 橫納한다. 그다음은 叠復한 上衣를 입히되 紋綾로 左右 足腕과 膝上을 結繫하고 가만히 尸體를 들어서 尸腰로 衣領上에 당계한 뒤에 左右에 각각一人은一手를 袖口에 넣어서 尸手를 붙잡고一手로 衣領을 맞잡아 점점 引上하여 衣容을 整齊하게 한 뒤에 紋綾 布巾과 째어 맨 紌絲를 모두 抽出하고 袴을 右向하여 옷 고름은 次第로 結繫하되 屈紐하지 말 것이다. 그다음에 網巾과 幅巾(婦人은 女帽)를 써운 뒤에 充耳와 握手를 쓸 것이요 幕으로 싸매고 大帶와 繼帶를 매게하여 頭를 신기되 蔽로 左右足을 合繫한 뒤에 單衾으로 덮고 主인이 하가 哭한다. 이러한 일은 반드시 主인이 하며 男子의 襲은 男子가 女子의 襲은 女子가 한다.⁴⁾

3. 小 敘

死亡한 다음날 거행하는 것으로 尸體를 衣衾으로 收敘하는 뜻이다. 敘할때는 반드시 喪主는 들어와 있어야 하고 방 가운데 尸身을 西쪽으로 향하여 놓고 제복을 준비해둔다.⁵⁾

그 過程은 紋(俗稱 小敘布 細布 22尺으로 밟다듬이 한것) 衿(緇衾蘋裏 着綿 깃과 동정이 있음) 正衣(道袍

內喪에는 唐衣나 長衫) 倒衣(上下 각一件) 散衣(동정과 옷고름을 뗀것)등의 衣服으로서 紋布의 橫紋은 四幅半이며 長은 三尺이니 每幅의 左右에 兩端을 折斷하되 각 幅의 中間에 八寸씩은 折斷하지 않을 것이니 합하면 九敘가 되고 縱敘는 一幅으로서 長이 二丈餘이며 三分으로 折斷한다. 小敘席(草席)을 펴 놓고 그위에 橫敘를 차례로 分排하여 均布하되 나머지 布端은 席底로 집어 넣어서 左右를 똑같이 하며 그 다음에 縱敘를 分排하여 均布하되 또한 橫敘와 같이 한뒤에 衿을 펴고 그위에 上倒衣를 當首處에 펴놓되 衣領을 上으로 두게 하여 모두 整齊하고 均布한 뒤에 席外로 들어진것은 席底로 집어 넣는다. 그 다음에는 褥을 펴고 枕을 놓은뒤에 執事者 六人중二人은 左右에서 尸의 頭部를 받들고二人은 尸의 腰부를 받들고二人은 尸의 脚部를 받들되 힘은 뚜렷이 하여 올려 놓고 當中 正直하게 한 뒤에 散衣로 足上에서 膝上上下에 이르기까지와 左右의 高를 腹部와 가지런하게 하되 점점 減殺하고 廣도 또한 같게 하되 按摩하여 量度하면 高低廣狹을 알 수 있으니 될 수 있는대로 均齊方正하게 한다.⁶⁾

4. 大 敘

小敘翌日에 거행하는 것이니 死亡한 三日이다. 入棺도 동시에 거행한다. 大敘할때 입히는 衣服은 小敘 때 입히는 衣服과 약간 틀리나, 될 수 있으면 같이 하여도 무방하다. 그리고 壽衣는 한편만 매매고 한쪽은 그대로 한다.

紋(俗稱 小敘布 細布 二十尺이며 밟다듬이 한것) 衿(緇衾蘋裏 着綿 깃과 동정이 있음) 正衣, 例衣, 散衣, 天衾(남빛 一幅) 地褥(자주빛 內拱 紅色) 枕(자주빛 地褥에 빼어낼것)등의 諸具가 必要하다. 紋布의 橫敘는 二幅半이니 兩端을 걸단하는 것은 小敘時와 같이하고 縱敘는 一幅이니 또한 小敘時와 같다.

III. 壽衣의 傳來

우리나라는 古代로부터 厚葬하는 風習이 있었는데 高麗時代와 朝鮮王朝에 와서는 儒教思想이 철저하여 특히 哭禮 및 祭禮等 祖上에 대한 禮를 소중히 여겼다.

옛기록에 나타난 것을 보면 고구려 美川王元年에 시체를 金銀으로 裝飾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壽衣를 만드는데 정성을 다하였음이 처음으로 보인다.⁷⁾

신라 文武王은 임종한 뒤 十日이 되면 궁문밖 뜰에서 인도의 儀式에 따라 불로서 살라 장사 지내라 하였고 服禮의 輕重은 본래부터 정한 法道가 있거니와 哭禮의 제도는 힘써 儉約한 것을 쫓으라 하였다.⁸⁾

朝鮮王朝에 있어서는 仁宗이 승하하고 明宗이 새로

즉위하였을 때 哀禮에 정성과 효도를 다하라 하였고¹⁰⁾ 光海君이 돌아갔을 때 성상께서는 光海의 哀을 들으시고 촉은함을 금치 못하여 곧 中使와 禮宮을 파견하여 멀리 바다에 건너가서 哀柩를 맞아오게 하고 이어서 또 三道의 監司에게 境上에서 받들어 모시라고 전교를 내리셨으며 정성되게 제사를 갖추고, 哀車가 올라오자 새로 만든 몇몇의 화려한 웃을 내리시어 염을 다시 하게 하셨다.¹⁰⁾ 이와같이 故人에 對한 遺恨이 없게 정성껏 모셔야 後孫으로서의 道理를 다하는 것이고 祖上에 대한 孝道라 생각하여 家產의 無리를 해가면서도 子孫으로서의 道理를 다하여 왔다.

壽衣를 만드는법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法俗이 있었는데 대개 生存時に 윤달중에서 吉日을 擇하여 만들었으며 바느질할때는 실을 중간에서 잇거나 뒤판을 뜨지 않고 한솔기 만큼 실을 끊어서 사용하였다. 이는 저승 길에 가다가 길이 막히거나 밤이 걸린다고 하여 실매듭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치수와 폭수에 있어서도 짙수로는 하지 않고 등정을 달지 않는다. 그러나 家風에 따라 종이를 받치지 않고 단기도 한다. 寿衣는 生前의 禮服과 같으며 다 갖추려면 명주나 베로 男子는 280尺女子는 300尺가량 든다.¹¹⁾

1. 階級에 따른 寿衣

壽衣는 階級과 身分 또는 貧富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었다.

國初에는 檉宮을 모두 승하한 때를 당해서야 마련하였는데 鄭陟이 비로서 건의하여 미리 寿器를 만들어서 갑작스런 일에 대비하기를 청하니 朝廷에서 이를 옳다 하여 비로서 長生殿을 세우고 즉시 公을 시켜 여러 道에서 널리 黃腸木을 구해서 寿器를 감독하여 만들었다.¹²⁾ 이때부터는 나라에 哀事が 있어도 유감이 없었다. 이렇듯 送葬之衣로서의 寿衣와 哀服은 國初에 文公家 禮와 國俗과 折衷하여 制定한 것으로 그뒤 이것이 그대로 遷用되었다 가끔 保守성이 強하여 家禮에 대한 無條件 傾倒와 아울러 각家庭에서 自家流가 조금 있기는 하나 家禮의 規制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宮中에서도 仁祖 이후의 것으로 많은 葬禮儀軌가 남아 있다.¹³⁾

五禮儀에 보면 寿衣에는 大帶・黑圍領・褡襪・帖裡・裏肚・汗衫・袴・襪 中에서 五品以下是 세가지만 쓰고 그 이상은 이를 규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網巾・幅巾・充耳・幘目・握手・履는 이외로 한다고 했다. 女子는 남편의 벼슬에 따라 정경부인 정부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을 때 원삼밑에 唐衣를 더 입게 된다.

옛날에는 격식이 엄격하여 寿衣에도 家風과 地位에 따라 한가지라도 더 입거나 덜 입지도 못하였다.¹⁴⁾

2. 織物 및 色

織物도 문별 지위에 따라 다르나 주로 細布 명주 공단등을 사용했으며 宰相家에서는 大貢綵으로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빨리 색은 것이 좋다고 하여 細布를 많이 사용하였다고 한다.

壽衣의 빛깔은 주로 순색으로 만들고 平當時의 衣服과 같이 有色으로 만들기도 했다.

염색은 보통 물감을 使用하지 않고 靑은 닥나무 잎으로 紅과 黃은 훠나무열매로 紫朱은 주치뿌리 문홍은 연지 검정은 쪽물등으로 물을 들었다고 한다.¹⁵⁾

1. 男子의 寿衣

1) 單 衫

저고리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고 치수는 생존시 입었던 옷보다 훨씬 크게 하여 훈으로 만든다. 색은 흰색으로 하고 고름은 달지 않는다. 입힐때는 출기가 산에 닿지 않도록 뒤집어서 입힌다.

2) 赤古里

평소에 입는 저고리 모양으로 하고 치수는 속적삼보다 크게 하여 겹으로 만들고 등정은 종이를 받하지 않는다. 옷감은 명주나 紱이나 배를 사용하고 색은 흰색이나 옥색으로 한다.¹⁶⁾

3) 單 裙

겉바지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고 치수는 생존시 바지보다 크고 넓게하여 훈으로 만든다. 색은 밴드시 흰색으로 면포나 명주 배로 하고 입힐때는 출기가 적접삼에 닿지 않도록 뒤집어서 입힌다.

4) 褐

평소에 입는 바지와 같은 모양으로 속고의보다 크게 하여 겹으로 만들고 옷감은 명주나 紱이나 배를 사용하고 흰색으로 한다.

5) 中赤莫

중치막은 두루마기와 같은 모양에 소매가 넓은 두리 소매이다. 중치막이 아니면 겹옷을 입었는데 모양은 중치막과 같으나 무가없고 옆이 터져있다.

옷감은 명주나 紱 혹은 배를 쓰고 색은 흰색이나 옥색을 사용하여 창의 민에 입는다.

6) 深 衣

창의는 深衣 밑에 입는 옷으로 앞은 中致莫과 같으나 뒤는 무를 넓게하여 반으로 접어 앞으로 넘기었다. 옷감은 명주나 紱이나 배로 만들고 흰색이나 옥색으로 한다.

7) 深 衣

심의는 죽은 사람의 옷으로 옛날부터 신선이 입는 옷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中國漢六朝時代의 祭服이며

朝鮮王朝에는 儒生들의 禮服이었다. 모양은 위는 저고리와 같이 짧은길에 소매는 넓고 무는 뒷길이 여섯 앞길이 여섯 모두 열두개가 달리고 도련과 수구에는 약 5cm정도의 검은 襪을 두른다. 양옆의 귀를 트고 띠를 떠다. 띠는 검은 색으로 하거나 흰천에 검은 襪을 둘르기도 하고 옷감은 대개 베를 사용하나 대관들은 백공단을 사용하기도 한다. 鶴鷺衣를 입기도 하는데 학창의는 深衣와 비슷하나 띠가 없고 고름이 있다.

8) 團 領

有官者の 團領은 두루마기와 비슷한 모양으로 소매가 넓은 형태의 袍이다. 宣祖王亂後에 朝官은 黑團領을 전용케 하고 大禮服으로 하여 祭禮賀禮에 黑團領을 착용케 하여 舊來의 제복은 흑단령 위주가 되었다. 深衣를 입지 않으면 쓴다.

9) 直 領

소매가 넓은 웃옷의 일종으로 俗制에 常服 上衣이며 深衣가 없으면 直領을 쓴다고 했으며 上衣이나 深衣와 같이 붙여 만든다. 근세에 鄉吏가 着用하는 直領에는 바로 두루마기에 廣袖만 단것 같아 된 것도 있었다. 高宗甲申의 제복 變通時의 道袍 창의등 다른 廣袖衣와 함께 폐하였다.

10) 褙 裳

소매가 없는 麵衣모양으로 벼슬아치가 입던 전복과 비슷한 모양이다. 만일 벼슬한 자가 深衣를 입지 않으면 쓰는 것이다.

11) 汗 衫

저고리와 같은 모양으로 홀으로 만들고 깃만 외로다는데 입힐때는 솔기가 직접 살에 닿지 않도록 뒤집어서 입힌다. 웃옷에서부터 차례로 껴서 한번에 입힌다. 색은 흰색으로 하고 고름은 달지 않는다. 이웃은 麵衣의 衫赤衫이라고 하며 이것은 벼슬아치들이 입는 白紗中單과 같다. 그러나 深衣와 약간 다르며 웃옷과 아랫도리는 속곳 역활을 한다.¹⁷⁾

12) 網 巾

머리털을 싸는 것이며 黑縞으로 한다. 체도는 생전에 쓰는 망건과 비슷하다.

13) 幅 巾

검은 카사로 홀으로 만드는 것이 원칙이나 검은 공단을 쓰기도 한다. 복건은 禮疑類輯에도 유관자는 복건을 써운다고 있고 家禮備要에는 검은 비단과 혹은 명주로 만든다고 있고 옛날에는 죽은 사람은 冠을 안쓰우고 비녀도 끊지 않는다고 한다. 또 사계가 말하기를 옛날에는 男女의 被에는 반드시 얼굴을 가리되 男子는 복건으로 대신하고 여자는 그냥 헝겊으로 가린다고 한다.¹⁸⁾

14) 腰帶와 端任

허리띠와 대님은 평상시와 같이하고 순색이나 남색으로 한다.

15) 行 繩

행전은 흰색으로 폭 25cm 길이 30cm정도로 하여 위에는 끈을 끼어 매게 한다.

2. 女子의 裝衣

1) 單 衫

속적삼은 흰색으로 홀으로 만들며 것을 외로 달고 고름은 달지 않는다. 생존시에 입던 것보다는 훨씬 크고 여유있게 만들어야 한다. 입힐때는 솔기가 직접 살에 닿지 않도록 뒤집어서 입히고 웃옷부터 차례로 껴서 한번에 입힌다.

2) 單 裳

속곳은 홀으로 하고 밑은 없으며 가랭이 밑에서만 약간 붙이는 정도로 길게 터서 단속곳 허리에 바지와 속곳을 한 허리에 단다. 치수는 평상시의 웃보다 훨씬 크게하고 흰명주나 細이나 베를 사용한다.

3) 裳

바지는 밑없는 겹바지로 만들어서 단속곳 허리에 속곳과 함께 단다. 치수는 속곳보다 좀 여유있게 하고 흰명주나 細이나 베로 한다.

4) 단속곳

단속곳은 홀으로 하고 밑이 없고 가랭이 밑에서만 약간 붙이는 정도로 길게 터서 단속곳 바지 속곳 세가지를 한 허리에 달고 끈도 한쌍만 단다. 치수는 크고 넓게 하고 흰명주나 단이나 베로 한다.

5) 赤古里

그. 속저고리
분홍색으로 겹저고리를 만들고 고름은 달지 않는다. 속적삼 바로 위에 입히는 웃으로 치수도 속적삼보다 크게 만들고 명주나 細을 사용한다.

ㄴ. 노란색 삼회장 저고리

노란 삼회장 저고리는 분홍색 겹저고리 위에 입제되므로 여유있게 만들고 옷감은 명주나 細으로 한다.

ㄷ. 연두색 삼회장 저고리

綠衣紅裳은 女子의 最高禮服으로 신부가 입는 삼회장 저고리와 같은 모양으로 만든다. 속적삼을 입은 위에 분홍 겹저고리와 그 위에 노란 삼회장 저고리 또 그 위에 연두색 삼회장 저고리를 갖추어 입하게 되므로 크게 여유있게 만들고 명주나 단으로 한다.

6) 裳

최고의 성장을 하고 간다는 의미에서 안팎 치마를 갖추어 밑에는 靑치마 위에는 紅치마를 입힌다. 청치마 홍치마 모두 흰안을 받쳐서 겹치마로 걸고 넓게 한다.

폭수도 짹수로 하지 않고 다섯폭으로 하여 명주나 緞이나 베로 한다.¹⁹⁾

7) 唐 衣

李朝末의 宮中撥起에서 보면 王대비의 小禮服으로 차용되었음을 보며 이것은 大禮服속에 입는 禮服으로 平服에도 입었고 양반 부녀의 혼례복 발임으로 사용하였다. 禮服中에서 가장 간편하고 모양이 아름다운 옷으로 연두색 길에 자주색 고름을 달고 소매 끝에는 끝동 모양의 훤천의 거들지가 달려 있고 옆귀를 터놓은 세폭길이의 옷이다.²⁰⁾

이것은 정경부인 정부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을 때 원삼밀에 당의를 더 입게 된다.

8) 圓 衫

壽衣의 圓衫도 모양은 신부가 입는 원삼과 같이 하고 치수만 크게 만든다. 옷감은 細布 명주 비단 공단등으로 하고 色은 순색으로 하거나 연두색길에 다흥 노랑 남색의 동달이를 달고 끝에 흰색을 단다. 깃과 고름은 자주색으로 하고 허리에는 흥색의 따를 同心結로 매어 길게 늘어트린다.

古禮에는 원삼의 대용으로 여자도 深衣를 입었다.²¹⁾

9) 女 帽

여자의 머리를 써우지 않는 것은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고 다만 머리를 가린다고 했다. 女帽은 藕衣에 만드는 것으로 결은 겹은색에 안은 다흥색으로 하여 겹으로 만든다.

3. 男女 共用의 藕衣

1) 冠

屍身의 形態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屍身을 넣어 써우는 것으로 겹은 색비단과 명주를 쓰며 크기는 七尺정도로 하여 가운데를 꾸부려서 한쪽 가는 합하여 폐하고 상하로 두옆은 폐매지 아니하고 각각 적은 띠 셋을다는 것이니 大夫는 5을 달며 이것을 質이라 하고 또는 붉은 것으로 七尺을 쓰되 가운데를 꾸부려 한쪽 가는 폐매고 가의 결은 폐매지 아니하며 적은 띠 달기를 같이 하여 이것을 殺이라 하니 위의 것을 質이라 하고 아래 것은 殺라 한다.

2) 幀 目

얼굴을 싸는 襪를 말한다. 순색이 아니면 겹은색에 남색안을 반쳐 겹으로 짓는다. 치수는 일정하지 않으나 대개 30cm정도의 정사각형의 양귀에 끈을 둘 달기도 하고 네 귀에 끈넷을 달기도 한다. 朝鮮王朝實錄에는 幀目과 악수는 될수있으면 면포로 만들고 充耳는 솜으로 대추만하게 뭉쳐 만든다고 있다.

3) 裏 頭

幀目과 같은 모양으로 약 3~5cm정도 크게 만들어서

幀目을 써운 위에 머리에서 아래로 써우는 襪이다.

4) 充 耳

흰솜으로 대추만하게 2개를 만들어 귀를 막는데 사용하며 塞耳라고도 한다.

5) 握 手

손을 싸는 襪인데 흰색을 겹으로 만들거나 또는 겹은 남색 안은 자주색으로 겹으로 만들기도 한다. 모양은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35cm 사방에다 양쪽에 끈을 단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폭 30cm 길이 20cm로 중간에 약간씩 판것이 있다. 退溪가 말하기를 양끝을 매나 모두 아랫쪽을 덮어서 맨다고 하였고 또 握手의 아랫 부분은 손을 에워싸고 묶으면 된다고 하였다. 또 高峰이 말하기를 의례에 악수는 둘인데 오른손과 왼손을 각각 싸서 묶는다고 하였다.

6) 謹 布

布帛尺이라고도 하며 겨드랑이를 켜서 드는 것으로 배 3~4尺으로 한다.

7) 小囊(汚囊)

주머니 다섯개를 순색으로 하거나 다흥색 명주나 비단으로 만든다. 하나는 머리를 빗길때 떨어진 것과 左右 손톱 발톱을 깎아서 각각 종이에 싸서 넣는다. 또 이 빠진것이 있으면 주머니를 한개 더 준비 한다.

8) 裹 肚

배와 허리를 싸는 襪인데 가는 배로 하거나 겹은 색에 남색 안을 반쳐서 겹으로 만들기도 한다. 크기는 배한쪽 넓이로 정사각형을 만들어 네귀에 끈을 단다. 이를 腹襪라고도 한다.

9) 襪

평소에 신던 베선보다 크게 만들고 겹은 명주나 비단으로 하고 안은 배로 하는 것이 원칙으며, 흰색으로 한다.

10) 履

실제로 신는 신이 아니므로 형식만 갖추어 남자는 남색 여자는 연두색으로 갓신 비슷하게 만들기도 하며 또는 겹은 비단이나 배에 종이를 섞어 만들기도 한다.

11) 天 衣

천금은 옷을 전부 입혀서 入棺시킨 다음 시체위에 덮는 이불인데 흰색으로 하거나 남색 명주나 緞으로 겹이불을 만든다.

12) 地 褥

관 밑에 까는 요로서 흰색으로 하거나 자주색 남색 등으로 하며 치수는 天衣과 같이 하고 겹으로 만든다.

13) 枕

베개 모양을 겹으로 만들어 풀솜을 약간 넣는다. 흰색이나 자주색 또는 남색의 명주나 緞을 사용한다.

14) 大歎衾

大歎禮를 드릴때 시체를 싸는 이불로 남색 이불에 자주 짓을 달거나 자주 이불에 남짓을 달기도 하고 여자는 연두 이불에 다흥 짓을 단다. 안은 흰색으로 하고 명주나 세포같이 폭이 좁은것은 다섯 폭으로 짹수로 해서는 안된다.

15) 小歎衾

小歎禮를 드릴때 시체를 싸는 이불로 大歎衾과 같이 하고 이불 폭을 세폭으로 하는것만이 다르다.

V. 結 論

이상에서 衷禮中 壽衣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朝鮮王朝에 儒教의 思想이 철저하여 衷禮 및 祭禮를 중히 여겼으므로 壽衣制度에 있어서도 그 饋식과 제도가 엄격하였고 階級과 身分 貧富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었다.

壽衣의 種類와 形태를 보면 男子 壽衣로는 單衫・單袴・赤古里・袴・中赤莫・鼈衣・深衣・團領・直領・汗衫・袴襪・網巾・幅巾 等이 있고 女子 壽衣로는 單衫・單袴・袴・赤古里・裳・唐衣・圓衫・女帽가 있다.

男女 共用으로 쓰이는 것은 冒・幘目・裏頭・充耳・握手・舉布・小囊・裏肚・襪・履・天衾・地褥・枕.

大歎衾 小歎衾等이 있는데 壽衣의 種類에 있어서도 階級과 身分 또는 貧富에 따라 가지 수가 달랐다.

織物은 主로 細布, 명주, 공단등을 사용했으며 宰相家에서는 大貢綢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빨리 썩는 것이 좋다고 하여 細布를 많이 사용하였다.

色은 전부 순색으로 만들었으며 또 平常時의 衣服과 같이 有色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바느질법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法俗이 있었는데 대개 生存時에 운달 중에서 吉日을 택하여 만들었고 바느질 할때 실을 잊거나 실매듭을 하지 않았다. 또 치수와 폭수도 짹수로는

하지 않았다.

이와같은 풍습은 아직까지 傳承되고 있으나 점차로 從來의 복잡한 衷禮儀式과 壽衣의 種類도 가정의 경제 사정에 따라 일정하지 않고 많이 簡素化되어가고 있는 경향이다.

引 用 文 獻

1. 李孟宗；家禮增解，卷三，木板本，55 (1824).
2. 金長生；家禮輯覽，卷四。
3. 李緯；四禮便覽，木板，8 (1824).
4. 朴胤源；近齊禮說，卷一 7.
5. 與猶堂全書，卷一，景仁文化社，17.
6. 金春東；韓國禮俗史，高大民族文化研究所，325 (1971).
7. 石宙善；韓國服飾史，寶晉齊，18 (1971).
8. 金富軾；三國史記，朝鮮史學會，200 (1941).
9. 東大野乘，21卷，京城朝鮮古書刊行會，73.
10. 大東野乘，50卷，13.
11. 石宙善；우리 나라 옷，光文出版社，109 (1961).
12. 大東野乘，23卷 590.
13. 金東旭；韓國服飾史研究，影印版，亞細亞文化史，33 (1973).
14. 石宙善；前揭書，109.
15. 樂桂淳；우리 옷의 變遷과 裁縫，修學社，180 (1965).
16. 石宙善；前揭書，113.
17. 李緯；前揭書，9.
18. 李鍾洙；四禮正解，우리 문화사，109 (1962).
19. 石宙善；前揭書，127.
20. 柳喜卿；李朝末女子禮服에 대한 小考，대한가정학회지，9(1)，443 (1971).
21. 李緯；前揭書，10.